인문논총 제77권 제2호 (2020.5.31), pp. 209~245
[DOI] https://doi.org/10.17326/jhsnu.77.2.202005.209

재난 이후 인문학적 실천*

— 세월호의 '바람'에게

한 순 미**

[초 록]

세월호 참사 이후 트라우마는 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염되었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의 변화를 긴급하게 촉구했다. 이 글의 목적은 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영역에서 어떤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는지를 세월호 전과 후에 출간된 몇 편의 논문과 저서, 매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세월호 이후 낯선 구조를 지닌 문장들이 출현하고 있는 현상을 읽고, 몇몇 개념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사유가 출현하게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059888).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주제어: 재난인문학, 세월호, 5·18 광주, 아우슈비츠, 후쿠시마, 재난과 폭력, 개념과 인식의 변화, 극단을 잇는 문장들, 사유와 글쓰기의 실천, 용서, 기억, 트라우마, 애도와 치유

Disaster Humanities, Ferry Sewol, 5·18 Gwangju, Auschwitz, Fukushima, Disaster and Violence, Changes in Concepts and Cognitions, Sentences Linking Extremes, Practice of Thinking and Writing, Forgiveness, Memory, Trauma, Mourning and Healing

된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세월호, 5·18 광주, 아우슈비츠, 후쿠시마 등의 교차점에서 어떤 사유와 글쓰기의 실천해 왔는지를 읽어본다. 마지막 4장에서는 세월호 이후 애도와 치유를 위한 노력의 한계를 짚어보면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양한 재난들로 인한 개념과 인식의 변화를 계보학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은 향후 수행할 과제로 남겨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문학의 영역에서 제기한 논의들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난 재난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시 진단하고 성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다. 분명한 것은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재난들이 한 국가라는 범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몸은 재난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1.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2020년 4월, 이 글을 쓰면서 2014년 4월 16일 '진도 여객선 침몰' 소식을 전하는 신문기사를 다시 펼쳐본다. 짧은 보도문에 적힌 글자들을 따라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되감는다. 세월호 참사를 목도한 사람들에게는, 가라앉은 배 안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얼굴들을 아직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이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침몰하기 직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던 "바람소리"다. 그것이 세월호 이후 덧없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태껏 남겨진 아픔의 실체를 증언한다.

>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부모들은 학교로 달려가 오열했다. 사고가 나기 전인 오전 8시쯤 아들 이승민(17)군과 통화했다는 B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바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아들은 '아직 배에 있다'고 했고 잘 다녀오라는 말만 해줬다"며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너무 무섭다"고 흐느꼈다.[1)]

사고가 나기 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몇 마디의 말들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던 바람소리. 그것들은 여전히 웅성인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 곁에 없는 목소리와 얼굴들이 떠오른다. 그날 이후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세월호 추모곡’ 중의 일부를 옮겨 본다.

>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2]

> “별들 아래서/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와/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기억 속에 모두가 사라진다 해도/바람이 잠든 곳에서 기억하겠소./당신의 이름을”[3]

이 세상에 없는 “나는” 지금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자유롭게 날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붙인 이름이다. 그것은 산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건네는 자기위안의 표현일 뿐이다. “당신의 이름”은 아무리 “위로”와 “용서”를 다한다 해도,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이 잠든 곳에서 기억하겠”다는 말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자들을 위해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말, 기약 없는 다짐에 불과하다.

2015년 9월, 세월호 안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세월호 속 마지막 사진’으로 공개되었다. 바깥에서 상상한 배 안과 다르게, 사진 속의 배 안에는 적막감이 흐른다. 기울어진 배 안에 갇힌 채 바깥에서 구조대원들이 곧 올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한다. 어두운 사진에

1) 「[진도 여객선 침몰] 배에서 온 전화 “엄마, 반쯤 잠겼는데 바다밖에 안보여”」, 『국민일보』, 2014. 4. 16.

2) 세월호 추모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2014).

3) 세월호 추모곡 「바람이 잠든 곳」(2018).

세월호 참사로 딸을 떠나보낸 이선미(단원고등학교 2학년 10반 고 김주희 양의 어머니) 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4)]

찍힌 얼굴 표정은 잘 보이지 않는다. 유리창 밖을 채운 녹색이 그곳이 바다 안으로 서서히 침몰하는 배 안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저 사진은 안과 밖의 감각을 이전과 다르게 만든다. 우리는 오직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날, 저 멀리서 침몰하는 선박을 그저 바깥에서,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사람들은 사진 앞에 있는 순간에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그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고백하자면 사실 이 글은 저 한 장의 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면 시작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세월호 안에서 찍힌 마지막 사진에서 1980년 광주를 생각했다. 5·18 당시 바깥과 단절된 외로운 섬, 광주에서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무참하게 학살당한 시민들의 얼굴이 겹쳤다. 세월호가 5·18 광주를 다시 불러낸 것이다.

세월호의 트라우마는 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염되었고 사건 직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긴급하게 촉구했다. 물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재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들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특히 '재난, 폭력, 증언'은 본 논문의 주요한 출발점이자

4) 「"어두컴컴한 바다뿐" 세월호 속 마지막 사진」, 『국민일보』, 2015. 9. 4.

연구 대상이다.[5] 세월호 참사 이후 아우슈비츠, 1980년 광주,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붕괴, 2011년 후쿠시마 쓰나미,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재난들이 연대기적 순서와 무관하게 상기되면서 인문학의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소박한 목적은 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영역에서 어떤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는지를 세월호 전과 후에 출간된 몇 편의 논문과 저서, 매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족하게나마 세월호 이후에 제기된 인문학적 성찰의 지점들을 드러내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에 출간된『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2015)은 인문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다양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서 제기된 것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논의이거나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볼 것은 세월호 이후에 생명, 폭력, 인간, 증언, 애도, 공감 등에 대한 사유가 더욱 예민한 논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부분만을 간추려 인용해 본다.

> 4・16 참사, 1년을 맞는 날도,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우리는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어둡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시어져간 저 팽목항,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마주해야 한다. 괴물적인 것에 자칫 익숙해질 몸과 귀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서.[6]

---

5)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미지연구소에서 출간한『폭력 이미지 재난』(앨피, 2012)은 "재난과 폭력을 근본적인 사유의 대상, 곧 '문제'로 삼아 '본원적'으로 사유한 성과들"을 수록하고 있다. 책의 서문에서는 재난과 폭력의 시대를 "벤야민과 아감벤의 표현을 빌려, 어쩌면 우리는 항상적 재난 상태, 항상적 폭력 상태, 곧 '예외상태' 속을 살아간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p. 6.)라고 진단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와 동일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듯하다. 또한 "기억 — 정동의 문제", "제3자의 증언과 이야기", "저널리즘의 역할", 그리고 "무젤만과 증언의 윤리"에서 '증언'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글들은 민주주의와 증언의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임경규 외(2018),『민주주의 증언 인문학』, 앨피).

6) 홍세화(2015),「여는 글」,『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p. 5.

>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에게 도래한 무수한 낯선 얼굴은 우리에게 비로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강제적으로 대면하도록 이끈다. 나는 이렇게 학살이라는 사건 이후 도래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탐구에 이르는 방법을 파시즘의 경험과 생존자들의 정동에 대한 기록들로부터 조심스럽게 얻어내고자 한다.[7]

> 공감 능력은 분명 '인간적'이지도 '보편적'이지 않고, 이념과 정치적 태도와 고난에 처한 대상과 하는 '접촉'의 넓기・강도에 영향받는 허약한 것이며, 공감은 그러한 접촉을 향한 노력이 있을 때만 생겨나는 '준-인위적인 것'이라 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8]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럽다.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괴물적인 것"을 바깥으로 드러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을 지켜봤던 우리는 어떤 "공통"의 기억을 간직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공감 능력"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고통과 기억은 동일한 형태를 지니며 움직인다. 지금의 고통은 다른 시공간의 기억들과 접속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쓰나미를 다시 떠올렸고 그 아픔의 결들은 분단과 전쟁, 유신독재, 1980년 광주5・18 광장,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04년 이후 사스, 조류독감, 광우병,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2009년 용산 참사 등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재난들로 번져나갔다. 이 사건들의 차이를 명료하게 분절하고 그 동일성과 차이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기억들을 접속하게 하는 힘이 고통의 강

7) 권명아(2015),「사건 이후의 인간학」,『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pp. 45-46.
8) 천정환(2015),「애도의 한계와 적대에 대하여」,『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p. 216.

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둔다.

이처럼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는 사유 방식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머물러 있는 '바람'의 본질을 닮아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출간된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2012)은 후쿠시마의 재난을 동아시아라는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시야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후쿠시마에서 불어온 바람이 야기한 사유와 감각의 변화는 단조롭지 않다. 조정환은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이 일으킨 "분열효과"에 대해 이렇게 쓴다.

>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할 방사능 바람과 새 생명을 움트게 할 변혁의 바람, 재앙의 바람과 혁명의 바람, 죽음의 바람과 사랑의 바람, 몰락의 바람과 전환의 바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9]

> 3・11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을, 즉 생명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천문학적인 시간 동안 누출된 방사능으로 생명체들의 대규모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이 점에서 3・11은 분명히 현대 자본주의가 품고 있던 위험, 재난, 죽음의 경향의 분명한 현현이며 구체화이다. 우리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보았던 피폭-이미지는 생명의 정지, 운동의 정지뿐만 아니라 시간도 정지되는 한 순간의 이미지를 또렷이 드러내준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의 피폭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피폭과는 달리 일순간의 폭발적 정지와 죽음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영구적인 죽음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접근금지구역 선포, 방향을 잃은 이주행렬, 곳곳에 나뒹구는 시체들, 황폐해진 마을과 황량한 벌판, 쓰러져 신음하는 동물들, 초점을 잃은 허망한 눈빛……, '무기력'이란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일 것이다. 그것은 행동할 능력의 축소와 상실을 표현한다.[10]

9) 조정환(2012), 「혁명과 재앙 사이의 후쿠시마」,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갈무리, pp. 15-16.

조정환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방사능 바람은 “낡은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억된다. 그 바람은 “위험, 재난, 죽음”이 드리운 현대 자본주의에 잠재된 문제점들을 가시화했다. 한편 후쿠시마의 피폭은, 히로시마/나카사키에서의 피폭과 달리 “서서히 진행되는 영구적인 죽음의 이미지”와 “무기력”이라는 감정의 표지를 남겼다고 분석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재난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을 활용한다. 즉 “재앙과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인지적 반응들(무기력, 공포, 공황, 두려움 등)에 충동 — 이미지들(애국심, 인종주의, 순종적 태도 등)을 부여하고 그것을 특정한 방향의 행동으로 이끈다.”[11] 이처럼 후쿠시마의 바람은 죽음의 이미지와 혁명의 가능성을 품고서 국가 체제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했다.

재난은 평온한 일상에 예기치 않게 출현한다. 시체들을 삼킨 바다, 흔적 없이 사라진 몸들은 바람의 빛깔과 냄새를 바꾼다. 재난 이후의 충격과 전율은 예기치 못한 재난들이 우리 사회에 잠재된 모순들을 한꺼번에 드러낸 곳에서 비롯된다. 재난이 지닌 급진성은 그것이 일회성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정치, 미학에 대한 사유와 감각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중의 하나다. 이는 『후쿠시마 이후의 삶』(2013)[12]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3・11 이후에 다시 “과거사 문제, 원폭, 원전,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원전 문제를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결해 사유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

10) 조정환(2012),「인지자본주의와 재난자본주의 사이에서」,『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pp. 127-128.

11) 조정환(2012),「인지자본주의와 재난자본주의 사이에서」,『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p. 132.

12) 한홍구・서경식・다카하시 데쓰야(2013), 이령경 역, 좌담집『후쿠시마 이후의 삶』, 반비. 이 좌담집에 실린 한국과 일본 지식인들의 제출한 문제의식들에 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후쿠시마와 세월호, 세월호와 후쿠시마의 교차점은 바람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해 우리의 사유와 감각을 넓고 깊게 만든다. 후쿠시마의 바람이 세월호의 바람과 마주하면서 우리가 느낀 공포는 단지 방사능 원전과 지진 쓰나미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날들이 가져다준 두려움은 이전에도 그와 흡사한 재난의 경험과 기억이 있었고 지금 어딘가에서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예감을 증폭시킨다. '바람'이 가져다준 후촉각의 전염성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하나의 몸으로 연결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재난의 기억을 공유하고 고통의 서사로 연대하는 장소가 된다. 초국경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과 인식, 서사와 치유의 교차점을 읽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진중한 과제이다.

다음 2장에서는 세월호 이후 낯선 구조를 지닌 문장들이 출현하고 있는 현상을 읽고, 몇몇 개념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개념과 사유가 출현하게 된 맥락을 짚어볼 것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세월호와 다른 역사적, 사회적 재난들 사이의 교차점에서 어떤 사유와 글쓰기의 실천을 지향해 왔는지를 읽어본다. 마지막 4장에서는 세월호 이후 애도와 치유를 위한 노력들이 갖는 한계를 짚어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적, 사회적 재난들로 인한 개념과 인식의 변화를 계보학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은 향후 수행할 과제로 남겨둔다.

2. 극단을 잇는 문장들: 단절/연속, 중단/변화

재난은 우리 사회에 잠재된 모순을 들추면서 재난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묻게 한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쓸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재난과 함께 동반되는 물음들은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난의 경험과 기억은 명

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감정, 정서, 개념과 인식 등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이전과 다른 사유의 지점을 개시한다.

따라서 재난이라는 사태 앞에서 혹은 재난을 겪은 이후에, 기존의 몸 — 말 — 생각 — 행위의 흐름이 단절/연속, 혹은 중단/변화되는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재난의 감각과 인식을 표현하는 문제와 상관된다. 달리 말해 재난의 경험과 기억을 담아내는 '언어의 역할', 사유와 글쓰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김홍중은 "세월호가 야기한 집합 우울을 '주권적 우울'"로 명명한다.[13]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울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분출된 담론들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통감(痛感)의 해석학"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이나 동감과는 다르"게 "통감은 주체가 대상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이 형성하는 집합적 마음의 흐름(affect)에 인식 주체가 휩쓸려 그 안에 빠져드는 마음의 다이내믹스를 동반한다. 통감은 의도적으로는 수행될 수 없다. 통감은 저절로, 불수의적으로 일어난다."[14] 즉 통감이란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들어가는 "집합적 마음의 흐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통감'과 '우울'에 관한 재정의가 필요한 것은 세월호라는 사건이 '나라'와 '국가'를 분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나라'는 '국가'와 미묘한 의미론적 차이를 갖는다. 국가가 실정적 제도와 장치의 앙상블을 가리킨다면, 나라는 데모스의 마음에 배태되어 있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집합표상인 동시에 이에 조응하는 역사・지리・인문적 리얼리티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나라'는 한국인들에게 '국가'보다 더 근원적인 상상적 두께를 부여받고 있는 기표이다. 국가들(정권들)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존속하는 역사적 삶의 터전이 바로 나라이다. 오랫동안 타향살이하던 동포들에게 한국은

13) 김홍중(2015),「마음의 부서짐」,『사회와 이론』26, 한국이론사회학회, p. 5, p. 145.
14) 김홍중(2015),「마음의 부서짐」,『사회와 이론』26, 한국이론사회학회, p. 159.

> ‘국가’가 아니라 ‘나라’이다. (…) 나라는 사상의 대상이 아니라 총체적인 마음의 지향의 대상이다. 사유가 아니라 상상과 희망을 포함한 포괄적 마음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팽목항에 매달린 실종자 가족의 한 편지에 적혀 있는 “애들아 넋이라도 혼이라도 절대 이 나라 돌아보지 마라”라는 절규는, 세월호 사건이 야기한 마음의 부서짐의 심도를 가늠케 하는 척도이다. 한국을 떠나는 것도,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적은 포기하는 것도 아닌 ‘나라’ 그 자체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존재 전체가 ‘나라’에 의해 배신당한 사람의 심저에서 울려나온 아픈 육성이다.[15]

세월호 이후 ‘나라’라는 말은 ‘국가’와 다른 맥락을 지닌 말로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나라’는 ‘국가’와 다르게, “고향, 산천, 풍경, 기억, 역사를 모두 내포하는 지리, 역사, 심성적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해온 ‘나라’라는 말을 환기하면서 나라와 국가의 ‘의미론적 차이’를 명료하게 구분하기 요청한 것이다. 이런 변별적 차이를 새삼 거론하는 것은 세월호 이후 ‘나라’와 ‘국가’의 변별적 차이를 통해 단지 ‘나라’를 잃었다는 우울감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세월호가 마음의 근본적 구조를 흔들고 파괴해 “마음의 부서짐”을 야기한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실종자 가족의 한 편지에 적혀 있는 다음의 구절, “애들아 넋이라도 혼이라도 절대 이 나라 돌아보지 마라”라는 절규에서 비롯된 바로 그 ‘나라’의 상실이기에 더 큰 호소력을 갖는다.

세월호 이후 ‘나라’가 문제적인 것은 그것이 ‘국가’와 내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라이든지 국가이든지,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15) 김홍중(2015), 「마음의 부서짐」, 『사회와 이론』 26, 한국이론사회학회, pp. 150-151.

앗아갔던 사건이었다. 팽목항은 그렇게 “근원적인 상상적 두께를” 지닌 ‘나라’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멀리 떠나보내게 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이전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우리 사회의 모순은 점점 가시화된다. 이제 ‘국가’를 가리키는 “공백”과 “구멍”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닌 것이다.

> 세월호 참사에서 대중들이 경험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검은 구멍”[16]이라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통 국가는 항상 이미 주어져 있는 가장 단단한 현실이라고 여겨지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대중들이 목도한 국가는 충격적이게도 “너무도 허망한 어떤 것”이고 “커다란 공백”[17]이었기 때문이다./국가는 눈앞에서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을 구조하는 데 무능력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생들을 구조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나라냐’하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가난한 우리’를 위한 국가는 없다, ‘가난한 나’를 위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18]는 자각이 이루어졌다. 만약 배 안에 갇힌 학생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아니라 외국어고나 과학고 또는 강남의 명문고 학생들이었어도 정부가 그렇게 대응했을까라는 의문이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고,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는 복종을 명령하는 환유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분노를 자아냈다. “국가는 ‘그들의 편’”[19]이었던 것이다.[20]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바로 “검은 구멍”이자 “커다란 공백”임을 그 자체로 증거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16) 진태원(2017), 『을의 민주주의』, p. 109.
17) 진태원(2017), 『을의 민주주의』, p. 110.
18) 진태원(2017), 『을의 민주주의』, p. 110.
19) 진태원(2017), 『을의 민주주의』, p. 110.
20) 진태원(2019), 「한반도 평화체제의 (탈)구축을 위하여」,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pp. 273-274.

였다. 무능력한 국가가 침몰하는 과정은 한국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가난한 우리'를 위한 국가는 없다, '가난한 나'를 위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각과 함께 평등한 민주주의의 환상 아래에서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을'의 존재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은 군사독재 하에서 정신과 신체를 지배하는 권위와 복종의 언어였는데, 그것은 갇힌 배 안에서 숱한 생명들을 앗아간 죽음의 구호가 된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정신과 신체에 오랫동안 각인된 언어체계이며 무엇보다 '국가'라는 애매한 정체이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가라앉은 국가는 아무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고 무엇도 지시하지 않는 텅 빈 말이 된 것이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감정의 표지 중의 하나는 '무기력'이다. 그런데 이 무기력은 1990년대 초반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느꼈던 우울과 상실의 감정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정치적 이념의 상실로 인한 우울함이 애착하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의 박탈감과 상관되는 것이라면, 세월호 이후의 '무기력의 자각'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국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믿었던 무엇인가를 상실한 곳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출현한 무력함이다. 그것은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과 '인식'의 장에 초래된 사유의 재난에 가깝다.

침몰하는 선박에서 생명들을 구출하기엔 국가가 무능력한 체계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은 곧 국가의 무능력함에 대해 우리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월호 이후 "무기력"과 "무지"에 대한 자각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양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이 '진실'과 '사실'을 감추고 있는 "비밀과 거짓말"의 대립적 언어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처럼 말이다. 비극적인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우리는 한결같이 '국가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왔지만 세월호 이후 그것은 이제 새로운 문장의 구조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다. 김상봉은 저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응답한다.

> 이 책은 그 물음을 묻는 젊은 세대에게 기성 세대의 한 사람이 건네는 응답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답은 동문서답이다. 왜냐하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나는 네가 국가요, 네가 나라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질문에서는 국가가 주어였는데, 대답에서는 '네'가 주어이다. 그러니 나의 답은 답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우리를 호명하고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라 너와 나, 바로 우리 자신이 국가를 이루는 주체임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끝끝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는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주어지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3인칭의 대상이 아니라 1인칭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저것도 국가가 아니고, 바로 네가 국가다. 네 속에 나라가 있다. 그러니 부디 이제 국가가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물어라! 오직 그렇게 대상으로서의 국가에서 주체로서의 자기에게로 물음의 방향을 돌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로 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21]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에는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도, '도대체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해 온 문장의 구조로는 답할 수 없다. 김상봉은 "네가 나라다"라는 극단을 잇는 문장으로, '나라'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답한다. 그는 질문의 주어를 바꾸어 대답하는 방식으로 '나'와 '너'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잇고 우리 모두를 정치적 주체로 세운다. 거기에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 "네가 나라다", 라는 이 간결한 문장은 나라가 개인과 무관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무엇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저 문장은 국가와 나라가 무엇

21) 김상봉(2017), 『네가 나라다』, 길, pp. 15-16.

인지를 묻기 전에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질문하라고 촉구한다.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결하는 문장들은 재난을 겪은 이후에 더욱 빈번하게 마주치게 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재난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해 왔던 언어의 용법과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22], "홍콩은 광주입니다" "광주 = 세월호" 등과 같은 문장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태를 이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증거로 보인다. 이 점은 5・18광주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역사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은 기억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는 세대적 정체성으로 이전 세대와 다른 공감의 방식을 지향한다. 또한 세월호에서 광주 오월을 상기하고 홍콩민주화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3]

이렇듯 극단을 잇는 문장들은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언어의 형상이며 폭력적인 현실을 기존의 언어체계로 붙잡을 수 없다는 인식의 한계상황에서 출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자주

22) 고은 외(2014),『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3) 2019년 12월 11일,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청년세대 포럼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2'에서의 주제 발표를 요약해 본다. 이단비・조수현(프로젝트 면밀),「극으로 마주하는 5・18『다시, 광주』」에서는 역사를 교육받는 것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교육받은 역사가 아니라 기억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정은(광주청년센터the숲)의「세대를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는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세대적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청년 세대가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전 세대와 다른 공감의 방식을 지향한다고 답한다. 김동규('광주오월을 기억해주세요' 페이스북 운영자)의「5・18의 전국화, 세계화」에서는 "제가 광주의 붉은 빛깔을 돌아본 건 2014년의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세월호에서 광주 오월을 상기한다. 또한 홍콩민주화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전남대 후문과 금남로에 게시한 현수막 "홍콩은 광주입니다. 홍콩민주화를 지지합니다(光復香港 時代革命)."(2019. 11. 14.)].

출현한 극단의 문장들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성찰하는 시선을 넓힌다. 그것은 다르게 보면, 재난 이후 재난이 야기한 사태들을 다른 각도에서 사유하기 위해 요청한 언어적 실천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우슈비츠, 광주, 체르노빌, 용산, 후쿠시마, 세월호, 홍콩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재난들은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연결하고 국가 간의 거리를 지우면서 유사한 패턴을 지니며 다가온다. 이는 후쿠시마와 세월호의 접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사유하는 문제틀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자리한 재난과 폭력의 기억을 교차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사유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남긴다.

3. 어떤 교차점: 후쿠시마 — (광주5・18/아우슈비츠) — 세월호

다시 3・11 이후 후쿠시마로 돌아가 본다. 3・11 이후 세계를 사고하는 지반은 폐허가 된 "거리"다. 거리는 쓰나미가 지나간 후 남겨진 "세계"의 모든 것이다.

> 세계가 망가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를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칠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선인들이 일궈 온 거리를 재건해야 한다. 거리의 역사를 계승하고 소중히 지키고 후대에게 전해 주는 과정으로 부단히 되돌아가야 한다. 이어지는 위기를 헤쳐 가면서 우리는 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24)]

24) 모리 이치로(2012),「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사상으로서의 3・11』(츠루미 슌스케・요시모토 다카아키・사사키 아타루, 윤여일 역), 그린비, p. 160.

> 이런 의미에서 3・11이 (이제 전 지구적 맥락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예기치 못한 핵재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전지구적 계급투쟁의 새로운 전선을 가리킨다는 것이다.[25]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세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다. 모리 이치로(森一郎)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재건해야 한다"는 요청과 "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 두 갈래의 길을 모색한다. 폐허가 된 거리를 "재건"하려는 의지와 "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게 보인다. 더욱이 재난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복구와 건설의 신화를 반복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편, 코소 이와사부로(高祖岩三郎)는 3・11을 계기로 "전지구적 계급투쟁"을 선포하고 "전지구적인 공동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철학적 차원에서 '세계'라는 개념과 '지구'라는 개념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후쿠시마 쓰나미의 성격을 둘 사이의 "충돌"로 설명한다. 이는 재난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과 투쟁으로 단순하게 정리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 확실히 그러한 의미에서 기구/장치의 내파인 후쿠시마는 '세계와 지구의 충돌'이라는 사건이었다. 즉 자연재해라는 형태로 무의식적 지구가 의식적 세계로 부상하고, 지구라는 궁극적인 커먼의 곳곳으로 넓고 깊게 확장하여, 그것과 일체화하려고 해온 기구/장치에 전대미문의 균열을 낸 것이다. 기구/장치의 내파는 그러한 일체화의 전선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충돌의 여진은 바야흐로 인간의 모든 것 — 주체성,

25) 코소 이와사부로(2012), 「녹색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송곳니들」(조정환 역),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pp. 188-189.

> 사회성, 역사성, 세계성 — 을 흔들기 시작했다.
>
> 세계와 지구의 이러한 충돌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집합적 의식으로서의 세계에서는 대립/모순/항쟁과 그 해결인 통합, 즉 세계사가 주된 이야기로서 자리한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집합적 무의식인 지구의 언어, 즉 기계적 운동에 근거해 사고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이야기 아래에 지구의 이야기가 관류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먼저 자본주의적 개인/주체성을 해체해야 한다.[26]

즉 "세계: 지구"의 대립은 "구조적 언어: 흐름/생산/운동"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틀로 볼 때 후쿠시마는 "세계와 지구의 충돌이라는 사건"으로 파악된다. '전지구'라는 익숙한 단어는 이제 실천적 행동을 개시하는 장소로 공간적 의미를 획득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보이는 재난들이 실상 지구의 힘이 세계의 지반을 흔드는 가운데, 인간과 세계의 토대를 재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힘을 지녔다는 것이다. 요컨대 3・11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생태적인 인식의 토대 전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후쿠시마의 바람은 세계와 지구가 충돌한 이후 "인간의 모든 것 — 주체성, 사회성, 역사성, 세계성 — 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선언을 제기하는 한편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세계의 이야기 아래에 지구의 이야기가 관류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 '지구의 언어'와 '지구의 이야기'에 대해 숙고하라는 요청은 생태적, 환경적 차원의 경고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항시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지구의 역습을 감지하면서 견고하게 만들어진 "자본주의적 개인/주체성을 해체해야 한다."는 인식의 실천적 변화를 촉구한다. 다시 말해, "후쿠시마로부터 온 전언을 해독하고

26) 코소 이와사부로(2012), 「3・11 이후의 지구적 아나키즘」(윤여일 역),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pp. 162-163.

이를 통해 실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는 국지적이 아닌 전 지구적인 공동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27]을 호소한다.

세월호와 후쿠시마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로 연결된다. 또한 세월호와 후쿠시마는 "비밀과 거짓말"의 신화를 다시 환기하는 사건이다. 두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시간은 숱한 "비밀"과 "수수께끼"를 남겼는데 '진실'과 '거짓말'을 가려야만 사건의 진상을 온전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은 세월호 싸움의 핵심이다. 자신은 도망가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한 선장의 거짓말이 승객과 학생들을 죽였다. 재난, 참사의 순간에 '명령을 따르면 죽는다.' 이것이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 배웠고 가르쳐야 하는 부끄러운 지혜다. 이는 또한 비밀과 거짓말에 대한 투쟁을 예기(豫期)한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는 수많은 비밀과 거짓말이 존재한다. 4월 15일, 기상악화로 다른 배들의 발이 묶여 있을 때 왜 세월호만 출항했을까? 왜 퇴선 신호를 울리지 않았을까? 어선들이 선미로 갈 때 해경은 왜 선수로 가서 선장과 선원만 구했을까? 국정조사는 왜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가? 이러한 수수께끼 속에서 인터넷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신만 도망친 선장과, 한국 전쟁 다시 가장 먼저 도망친 뒤 국민들에게는 우리 국군이 공산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기 바란다고 거짓 방송을 했던 이승만을 오버랩 시킨 포스트가 넘쳐났다.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친구들은 말로만 듣던 전쟁을 경험한 것 같다고들 했다.
>
> 이 '가만히 있어라'의 명령은 세계 곳곳에 들린다. 3・11 직후 일본 정부는 일부 후쿠시마 주민에게 자택 피난을 명령했다. "집에 가만히 있어라"는 말과 "당장 인체에 영향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를 두고 일본인들은 '정보 피폭'이라고 불렀다. '가만히 있어라, 당장은 영향이 없다, 라는 명령을 따르면 죽는다.' 이것이 일본인들이 3・11을 통해 배운/배우고

27) 이명원(2012), 「끝에서 시작으로」,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p. 222.

있는 부끄러운 지혜다.[28]

신지영은 세월호가 남긴 숱한 의문들 중에서 거짓 선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장면을 매개로 한국전쟁과 후쿠시마의 광경을 겹쳐 읽는다. 세월호가 남긴 거짓말들은 "우리 국군이 공산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기 바란다고 거짓 방송을 했던" 한국전쟁의 기억을 다시 상기하게 한 것이다. 세월호는 광주 오월, 그리고 유신독재에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축을 수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 그리고 세월호의 기억은 다시 3・11 후쿠시마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당장은 영향이 없다, 라는 명령"과 마주한다. 세월호와 후쿠시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동요하지 않도록 부추기면서 국민보다 국가의 안전을 우선 유지하는 데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국가는 바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재난의 수용소와 다름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닿는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용어는 3・11 후쿠시마가 직면한 사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29] 그것은 후쿠시마, 세월호, 아우슈비츠에서 목도한 '절멸'의 기억을 현시한다. 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은 1980년 광주 오월의 봄이다. 후쿠시마 — 아우슈비츠 — 세월호라는 교차점은 세월호 이후 광주 오월을 매개로 고통의 기억을 연결하는 고리로 떠

28) 신지영(2016/2017), 『마이너리티 코뮌』, 갈무리, pp. 469-470.

29) 한국의 팽목항을 비유한 사사키 아타루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라는 말은 사사키 아타루, 윤여일 역, 『사상으로서의 3・11』, 그린비, p. 60. "여기서 세월호 참사는 선박 침몰 사건이었고 3・11은 대지진과 연이은 원전 폭발 사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상자 수와 재산상 피해액의 규모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사건 사이의 이질성을 주장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도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 팽목항은 아타루적인 의미에서 '그라운드 제로'였다."(김형중(2016), 『후르비네크의 혀』, 문학과지성사, p. 99).

올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20세기 역사는 바로 그런 재난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의식"과 "부끄러움"의 연대기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이 간직하게 된 "투쟁 안에서 공유된 부채의식과 죄책감은"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실천으로 발전했다."[30]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세월호 이후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세월호의 증언자는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건의 현장에서 혹은 매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침몰 과정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세월호는 우리 모두가 사건의 증언자라는 사실은 전쟁과 학살의 역사에서 특정한 증언자들이 거짓과 진실을 가늠하는 데에 중요한 위치를 지녔던 것과 다른 기억 연구의 방향을 예고한다.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라면 증언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을 다시 증언한다는 것은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묻는 데에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재난은 무엇보다 재난을 말하고 쓰는 "언어활동"에 충격을 가한다. 폭력 앞에서 말은 무력하다. 말한다고 해도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재난을 겪은 언어는 재난을 겪기 전과는 다른 강도와 리듬을 지닌 언어를 요청한다. 모리스 블랑쇼의 말을 빌리면 재난 이후의 글쓰기는 재난을 직면하는 것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 즉 "거부"하면서 "쓰는 것"이다. 즉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은 쓰기를 거부하는 것, 혹은 이 거부의 방식에 의해 글을 쓰는 것이다."[31] 여기서 실천적 행위란 글을 쓰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쓰는 것이다.

---

30) 은우근(2019), 『너와 나의 5・18』(5・18기념재단 기획, 김정인 외), 오월의봄, p. 377.

31) 모리스 블랑쇼(2012), 박준상 역, 『카오스의 글쓰기』, 그린비, pp. 67-68.

이 지점에서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언어활동” 곧 “맹세”라는 단어가 다시 주목된다. 아감벤에 따르면 “언어활동이란 그 근원 — 발생에서의 의미와 무의미의 문턱, 혹은 언어와 의미 사이의 간극 자체이기 때문에, 맹세란 언어의 위약함(무의미로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32] 아감벤이 말한 맹세는 본래/이미 “언어의 위약함”을 내장한 발화 행위이다. “신뢰와 약속의 진실함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맹세’가 더욱 중요해진다. ‘말하는 나’는 어긋남과 분리 사이에 “유예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말의 본질적 속성이기도 하다. 말과 글은 “생명과 언어 사이의, 말과 행위 사이”의 분리에 기반한다. 재난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출현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말과 글로 형용할 수 없는 사태이며 언어 본래의 “어긋남”과 “틈”을 극대화한다.[33]

김항의 『종말론 사무소』(2016)는 1991년 5월에서 1980년 5월을 상기하면서, 이후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사유와 글쓰기’에 대한 고뇌를 펼쳐 보인다. 그것은 재난과 폭력으로 일관한 한국 현대사에서 사유와 글쓰기를 ‘실천’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에 바쳐진다. 즉 이 책에서 말하는 실천이란 “진보가 아니라 정지, 구성이 아니라 분해, 주체가 아니라 실존, 대안이 아니라 공백”[34]을 사유하는 것이다.

>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상정하려 했던 종말론 사무소의 안건은, 그런 의미에서 상실과 소외와 분리의 경험을 말소하고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이의 제기라 할 수 있다. (…) 이 망각의 구멍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성장의 이름으로, 풍요의 이름으로, 진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치였다. 1991년 5월 이후에 펼쳐진 일은 인간의 운명, 즉 원천적

32) 김항(2016), 『종말론 사무소』, 문학과지성사, p. 203.
33) 조르조 아감벤(2012), 정문영 역, 「옮긴이 후기」, 『언어의 성사』, 새물결, pp. 154-155.
34) 김항(2016), 『종말론 사무소』, p. 33.

> 으로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서만 경험되는 상실과 소외와 분리를 소외론과 물신론으로 환원하여 더 나은 미래(진보와 성장)라는 미명하에 망각한 광경이었던 셈이다. (…) / 무언가를 산출하고 집행하여 성취하는 언어가 아니라, 상실과 소외와 분리의 삶에 머무르며 신음하는 언어, 이 책이 시론적으로 제기한 여러 안건들이 그러한 언어의 연쇄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길었던 종말론 사무소의 회의를 여기서 일시 정회한다.[35]

김항은 마르크스-레닌의 '소외' 개념을 전유한 드보르의 '분리' 개념을 경유해 발터 벤야민과 조르조 아감벤의 언어철학을 정치적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이를 통해 "진보가 아니라 정지, 구성이 아니라 분해, 주체가 아니라 실존, 대안이 아니라 공백"을 바로 "통치"의 서사에 대항할 수 있는 "실천"의 지점으로 포착한다. 생각하고 쓴다는 것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성장의 이름으로, 풍요의 이름으로, 진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치"에 의해 훼손된 것들, "망각의 구멍"으로 던져진 것들을 꺼내어 구원하는 작업에 비견된다. 거기에서 "무언가를 산출하고 집행하여 성취하는 언어가 아니라, 상실과 소외와 분리의 삶에 머무르며 신음하는 언어"를 통치의 서사에 대항할 수 있는 언어의 형상으로 제출한다. "신음하는 언어"는 '이름'을 참칭해 소중한 덕목들을 집어삼킨 '장치'들을 소집해 심문하는 근본 조건으로서 말이 되지 못한 웅얼거림에 가까운, 비재현의 언어이다.

사회적 재난, 역사적 재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용서에 관한 문제는 매우 예민한 논점이 된다. 쉽게 용서한다거나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고통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지닌 시몬 비젠탈(Simon Wiesenthal)의 말을 인용해야 할 것 같다. "망각이란 오직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지만 용서는 인간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결

35) 김항(2016),『종말론 사무소』, pp. 303-304.

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고난을 당한 장본인뿐이기 때문이다."[36] 프리모 레비(Primo Levi)는 시몬 비젠탈의 증언을 인용해 가해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나치의 절멸 수용소에 대한 최초의 소식들은 격동의 해인 1942년에 퍼지기 시작했다. (…) 많은 생존자들, 그중에서도 『살인자들은 우리 가운데에 있다』(1970)의 마지막 페이지들에서 시몬 비젠탈(Simon Wiesenthal)은 SS (Schutz-staffel, 나치 친위대) 군인들이 냉소적으로 포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면서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
>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간에, 너희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긴거야. 너희 중 아무도 살아남아 증언하지 못할 테니까. 혹시 누군가 살아 나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를 믿어주지 않을걸. 아마 의심도 일고 토론도 붙고 역사가들의 연구도 있을 테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증거들을 너희와 함께 없애버릴 테니까. 그리고 설령 몇 가지 증거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희 중 누군가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너희가 얘기하는 사실들이 믿기에는 너무도 끔찍하다고 할 거야. 연합군의 과장된 선전이라고 할거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우리를 믿겠지. 너희가 아니라. 라거(강제수용소)의 역사, 그것을 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될 거야.][37]

이야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망각될 지도 모를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고통의 역사는 누구의 언어로 어떻게 남겨질 수 있을 것인가. 시몬 비젠탈은 "라거(강제수용소)의 역사, 그것을 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될 거야."라고 한 나치 군인의 말을 기억한다. 나치 군인은 그들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절멸의 수용소를 기획했으므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살

36) 시몬 비젠탈(2005/2019), 박중서 역,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뜨인돌, p. 156.
37) 프리모 레비(2014/2015), 이소영 역,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pp. 9-11.

아남아 증언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 증언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시 말하면, 학살의 역사는 바로 학살자인 자기 자신들의 기억과 언어로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용서와 치유가 가능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용서의 주체와 대상의 자리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용서와 치유는 또 다른 "폭력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억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폭력적일 때도 많다. 특히 이미 죽은 피해자를 대신해 누군가 살해범을 용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유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 (…) 누구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 이렇게 폭력적인 용서가 정말 위험한 것은 그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도 억울한 피해자를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사람들은 사과와 용서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 평화는 여전한 피의 얼룩을 짐짓 못 본 척하는 거짓 평화일 뿐이다. 기억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서둘러 가해자를 용서하고 상처를 봉합해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끔찍한 행위조차도 인간성의 일부임을 아프게 인정하고 인간의 그 끔직한 일부가 다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더 나은 기억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리라. 홀로코스트 이후 전 세계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제노사이드만 50여 건을 헤아리는 상황에서 용서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38]

즉 사랑과 용서라는 말과 행위는 폭력의 기억을 망각으로 이끌 수 있기에 더욱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증언은 언제까지나 목격자, 방관자, 희생자 등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일 뿐이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증언은 윤리적인 요청이지 죽은 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아니

38) 임지현(2019),『기억 전쟁』, 후마니스트, pp. 265-267.

다. 그런 점에서 죽은 자들의 증언은 단 한 번도 행해진 적이 없다. 죽은 자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언어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에게서 진정 용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 용서는 결코 행해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핀 것처럼 후쿠시마 — (광주5・18/아우슈비츠) — 세월호라는 교차점은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재난이 얽힌 재난의 복잡한 성격을 드러낸다. 이 교차점을 매개하는 것은 세월호 이후 돌이켜본 5・18 광주이다. 재난의 트라우마는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의 흔적을 다시 비춘다.

4. 죽은 자에게 말걸기: “들리지 않는 목소리”

충분히 말해지지 않았고 쓰지 못했던 그것, ‘남겨진 것’이 문학이 트라우마를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의 장소일지도 모른다. “침묵”하는 언어가 그 장소의 “이름”이다.

> 의미가 사라진 ‘비언어’가 발화되는 바로 그 지점, 거기가 트라우마가 거처하는 장소일 것이다. 모든 언어와 이해가 소멸되는 지점, 그러나 바로 그 지독한 침묵으로 인해 우리 모두를 고통 속으로 빨아들이고, 종래에는 역설적으로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지점.[39]

> 문학의 언어는 언어의 불가능성과 침묵의 잠재성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사건 이후의 문학’은 말할 수 없는 자의 언어의 자리에서 그 모

39) 김형중(2014),「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문학과사회』27(3), 문학과지성사, pp. 280-281.

> 순과 분열을 '견디는' 남은 자의 글쓰기이다. 문학은 사라진 자들의 침묵의 능력에 의지한다. 문학은 말할 수 없는 자의 익명으로만 간신히 말할 수 있다. 주어를 알 수 없는 저 목소리들을 통해 이름은 지워지고 다시 태어난다. 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이름들. 과거이자 이미 미래인 이름들. 무서운 밤처럼 들이닥친 아침의 이름들. 명랑한 다정한 창백한 조각난 흐려진 이름들의 이름으로.[40]

> 역설적이지만, 폭력의 '사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재현할 수 없는 그 '사실성'에로 반복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폭력적 '사건'과 죽은 자들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의 재현 불가능성을 언제나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41]

이 불가능한 지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실천적 행위가 요청된다. 그것을 가까스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와 문학'의 힘이다. 문학은 매순간 재현 불가능한 사건 앞에서 언어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부여받는다. 문학의 언어로 트라우마를 재현하려는 시도에서 뚜렷해지는 것은 '재난과 폭력'의 근친성이다. 재난의 트라우마를 재현하려는 언어적 실천은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를 예민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폭력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숱한 정치철학자들이 논의해왔던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폭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태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을 키운다.

---

40) 이광호(2014), 「남은 자의 침묵」,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pp. 104-105.

41) 차승기(2016), 「폭력의 기억은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pp. 315-316.

> 다시, 폭력에 대해 말해야겠다. 언젠가 '폭력'이라는 말의 외연은 가급적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나는 폭력을 다음과 같이 폭넓게 정의해보려고 했다. '폭력이란? 어떤 사람/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모든 태도.' 더 섬세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택하는 순간, 타인에 대한 잠재적/현실적 폭력이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니어서, 그후로도 자주 폭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42]

재난과 더불어, 재난 이후 폭력의 가능성은 늘 일상의 곳곳에 잔존해 있다. 그런 폭력에 또다시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폭력의 기억을 말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 세월호 이후에 광주5·18의 국가폭력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5·18 전후의 역사 폭력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날 이전과 이후를 동시에 말함으로써 혹은 말하지 못함으로써 나아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인가를 계속하는 말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어떤 발언의 시작이다."[43]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장면을 두 눈 뜨고 그저 지켜봐야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상처 자국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지워지지 않는다. 소설 속에 재현된 그날은 더 선명한 모습으로 밀려온다. 김탁환의 소설집『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2017)와 방현석의 중편소설『세월』(2017)은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세월호 문학'이 감당할 과제를 열어준다.[44] 김탁환의『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에서는 세월호를 직접 경험한 것과 세월호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의 차이를 질문한다. 소설가에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

42) 신형철(2018),『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p. 94.

43) 한순미(2016),「나무 — 몸 — 시체」,『인문학연구』52,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257-303.

44) 김탁환(2017),『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와 방현석(2017),『세월』에 관한 논의는 한순미(2017),「불면의 감촉」,『문예연구』여름호, 문예연구사 참조.

‘나’에게는 침몰선에서 봤던 ‘눈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다. 세월호의 실재와 재현 사이의 간극은 쉽게 메울 수 없는 빈틈이다. 방현석의 『세월』은 세월호 참사를 한국이라는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초국경의 시각으로 확장해 다룬다. 이 소설은 “단지 ‘세월호’만을 문제 삼지 않고 까마우의 바다로부터 팽목항까지 덮친 그 거대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하나의 물음을 던지고 있다.”[45]

우리는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이전부터 서서히 기울고 있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일어난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목격자이며 산증인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던 증인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력한 증인들이었다. 유가족들에게 전하는 “걱정”과 “위로”의 말들은 넘쳐났지만 어떤 말들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다. 세월호 유족들에겐 애도와 공감의 말들이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불과하다.

>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이미 여러분의 일로 받아들이고 계시니, 영원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위로해주십니다. 하지만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진심은 알지만 실제로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
>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억울하게 잃었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잊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적응해야죠. 제 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적응하고 최면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주십시오.
>
> “한 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46]

---

45) 정은경(2017), 「더 기울어진 방으로」(해설), 방현석 소설집 『세월』, p. 93.

46) 「서강대 이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 『경향신문』, 2014. 5. 21.

저 단호한 거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니다. 공허한 말들로 아픔을 달래주기보다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진정 듣고 싶은 말이다. 잊지 않겠다는 '의지'만이 죽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력한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침몰하는 배를 지켜봄으로써 곁에서,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던 감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애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록된 것은 언제나 봉합되지 않는 여백을 지닌다. 역사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사로 변주하는 과정은 곧 사회문화적인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재난은 '역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역사라는 기록'이 지닌 한계에 대해 의문을 붙인다. 재난의 역사 기록은 간결한 언어로 정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5・18광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주체들은 여럿인데, 군 기록은 시민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군 기록의 한 가지 특징은 군이 행위의 주체, 또는 주어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경'이나 '계엄군'과 같이 애매하게 표현하고 군의 시위 진압 방식은 아예 생략되지만 시민(학생)들의 시위는 세세하게 기록했다. 시위 대열의 규모, 시위 방법 및 구체적인 행위 등을 서술하고 있다."[47] 이처럼 기록 속에 기록되지 않는 것. 누구의 기억과 서사에 의해 기록된 역사인가라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는 문제다. 이는 비단 광주5・18에 관한 기록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폭력과 야만"의 역사를 서술하는 자의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필요하다. 기록 속에서 삭제된 기억을 재구성하고, 진실과 왜곡의 지점들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작업은 그칠 수 없는 일이다. 역사적 기억과 트라우마는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진실 찾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7) 노영기(2017),「5・18항쟁 기록물의 생성과 유통」,「역사와 현실」104, 한국역사연구회, p. 129.

이야기는 그 시대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발굴한다. 침묵의 역사와 손상된 기억들을 지금 여기로 다시 소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서경식(徐京植)의 말대로 "문서만이 아니라 전승되는 이야기나 신화, 고고학적 수법 등을 활용해 오래된 지층에서 기억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48]이 요구된다.

전쟁과 학살, 국가폭력, 자본주의에 대항해 죽어간 이름 없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기'(한나 아렌트)는 역사 기록의 이면에 자리한 침묵과 망각의 지층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과제 중의 하나는 동아시아 재난 기록들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억/망각/삭제/추가/변형되면서 서사화 되었는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재난 이전과 이후, 개념과 인식의 형성과 구조를 계보학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문학의 영역에서 제기한 논의들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난 재난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시 진단하고 성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역사적 재난들이 한 국가라는 범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몸은 재난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세월호의 바람에게 되묻는다. 지금 여기에서 겪고 있는 '재난과 폭력'은 세월호가 매순간 다르게 그려주고 있는 '일상의 지도'가 아닐까. 나는 프리모 레비의 말을 바꾸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과 함께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가라앉았고 새로운 역사 기록이 구조되고 있다고, 쓰고 싶다.

48) 서경식・다카하시 테츠야(2002), 김경윤 역,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삼인, p. 43.

참고문헌

【자 료】

세월호 추모곡 「바람이 잠든 곳」(이승원 작사, 성용원 작곡, 2018).

세월호 추모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임형주 노래, 2014).

「“어두컴컴한 바다뿐” 세월호 속 마지막 사진」, 『국민일보』, 2015. 9. 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23634&code=61121111&cp=nv.

「서강대 이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유경근씨」, 『경향신문』, 2014. 5.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51108411&code=940100#csidx0d2e36134d74ae3a87f3bdf44f3079d.

「[진도 여객선 침몰] 배에서 온 전화 “엄마, 반쯤 잠겼는데 바다밖에 안보여”」, 『국민일보』, 2014. 4. 16,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98383.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청년세대 포럼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2」, 2019. 12. 11.

【논 저】

고은 외(2014),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김명인(2017), 「‘세월호 문학’의 시작」(해설),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김탁환 소설집), 돌베개.

김상봉(2017), 『네가 나라다: 세월호 세대를 위한 정치철학』, 길.

김종군 외(2018),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치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패러다임북.

김탁환(2017),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 돌베개.

김항(2016), 『종말론 사무소』, 문학과지성사.

권명아(2015), 「사건 이후의 인간학 — 혼의 투쟁에 대하여」,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김형중(2016), 『후르비네크의 혀』, 문학과지성사.

_____(2014),「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 트라우마와 문학」,『문학과사회』27(3), 문학과지성사.
김홍중(2015),「마음의 부서짐: 세월호 참사와 주권적 우울」,『사회와 이론』26, 한국이론사회학회.
노영기(2017),「5·18항쟁 기록물의 생성과 유통」,「역사와 현실」104, 한국역사연구회.
_____(2017),「10년 전의 기억, 새로움을 위한 제언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5·18 조사 활동과 평가」,『역사비평』121, 역사문제연구소.
방현석(2017),『세월』, 아시아.
신지영(2016/2017),『마이너리티 코뮌 — 동아시아 이방인이 듣고 쓰는 마을의 시공간』, 갈무리.
신형철(2018),『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은우근(2019),「5·18공동체: 부끄러운 자들을 위한 연대」,『너와 나의 5·18』(5·18기념재단 기획, 김정인 외), 오월의봄.
이광호(2015),「남은 자의 침묵 — 세월호 이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이명원(2012),「끝에서 시작으로 — 용산, 뉴욕, 후쿠시마」,『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갈무리.
임경규 외(2018),『민주주의 증언 인문학: 민주주의는 증언에서 시작된다』, 앨피.
임지현(2019),『기억 전쟁: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후마니스트.
정문영(2016),「침묵의 고고학 혹은 '유언비어'에 관하여」,『이미지 테크놀로지 생명정치 — 생명관리 사회의 테크놀로지와 권력』(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미지연구소 편), 앨피.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미지연구소 편(2012),『폭력 이미지 재난: 폭력의 스펙터클 그 상상의 끝』, 앨피.
조정환(2012),「혁명과 재앙 사이의 후쿠시마」,『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갈무리.
_____(2012),「인지자본주의와 재난자본주의 사이에서 — '후쿠시마'라는 이름」,『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갈무리.
진태원(2019),『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비판 없는 시대의 철학』, 그린비.
_____(2017),『을의 민주주의: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 그린비.

차승기(2016),『비상시의 문/법: 식민지/제국 체제의 삶・문학・정치』, 그린비.
천정환(2015),「애도의 한계와 적대에 대하여」,『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한순미(2017),「불면의 감촉」,『문예연구』여름호, 문예연구사.
_____(2016),「나무 — 몸 — 시체: 5・18 전후의 역사 폭력을 생각하는 삼각운동」,『인문학연구』52,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홍구・서경식・다카하시 데쓰야(2013), 이령경 역, 좌담집『후쿠시마 이후의 삶』, 반비.
홍세화(2015),「여는 글」,『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현실문화.
서경식・다카하시 테츠야(2002), 김경윤 역,『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삼인.
이소마에 준이치(2016), 장윤선 역,『죽은 자들의 웅성임: 한 인문학자가 생각하는 3・11대재난 이후의 삶』, 글항아리.
모리 이치로(2012), 윤여일 역,「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사상으로서의 3・11 — 대지진과 원전 사태 이후의 일본과 세계를 사유한다』(츠루미 슌스케・요시모토 다카아키・사사키 아타루), 그린비.
사사키 아타루(2012), 윤여일 역,「부서진 대지에, 하나의 장소를」,『사상으로서의 3・11 — 대지진과 원전 사태 이후의 일본과 세계를 사유한다』(아이아 총서 9)』, 그린비.
코소 이와사부로(2012), 조정환 역,「녹색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송곳니들: 혁명과 재앙 사이의 세계와 지구」,『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갈무리.
_____(2012), 윤여일 역,「3・11 이후의 지구적 아나키즘」,『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갈무리.
자크 랑시에르(2016), 박영옥 역,『역사의 형상들』, 글항아리.
조르조 아감벤(2012), 정문영 역,『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 새물결.
_____(2012), 정문영 역,『언어의 성사: 맹세의 고고학』, 새물결.
모리스 블랑쇼(2012), 박준상 역,『카오스의 글쓰기』, 그린비.
프리모 레비(2014/2015), 이소영 역,『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시몬 비젠탈(2005/2019), 박중서 역,『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 뜨인돌.

원고 접수일: 2020년 4월 16일
심사 완료일: 2020년 5월 6일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7일

ABSTRACT

Post-Disaster Humanities Practice:

To the Wind of Ferry Sewol

Han, Soonmi*

After the Ferry Sewol disaster, trauma was quickly transmitted through the media and urgently called for a change in cognition that something had to be do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at what issues have been raised in the realm of humanities since Ferry Sewol, focusing on several papers, books and media published before and after Ferry Sewol.

First, in Section 2, we read about the emergence of sentences with unfamiliar structures since Ferry Sewol and looked at the context in which new issues emerged by reinterpreting some concepts. In the following Section 3, we analyze what thinking and how writing has been practiced at the intersection of other historical and social disasters such as Ferry Sewol, 5・18 Gwangju, Auschwitz and Fukushima. The final Section 4 will conclude by pointing to the limitations of forgiveness, mourning and healing efforts after Ferry Sewol. The task of genealogically exploring changes in concepts and perceptions caused by historical and social disasters remains a task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Chosun University

Discussions raised in the realm of humanities after the Ferry Sewol disaster give rise to new concerns about what and how to re-diagnose and reflect on disasters in East Asia and around the world. What is clear is that natural, social and historical disasters are not issues to be dealt with within the scope of a cross-border. In this regard, our bodies are a community connected by disasters.